

LG정유, 용제시장 양보 못한다!

수입 통한 시장유지전략 선회 ... Toluene 시장 마진율 낮아

LG-Caltex정유는 MTPX 공정을 채용함으로써 최대 Toluene 수출기업에서 소비기업으로 전환됐으나, 용제용 Toluene 공급은 지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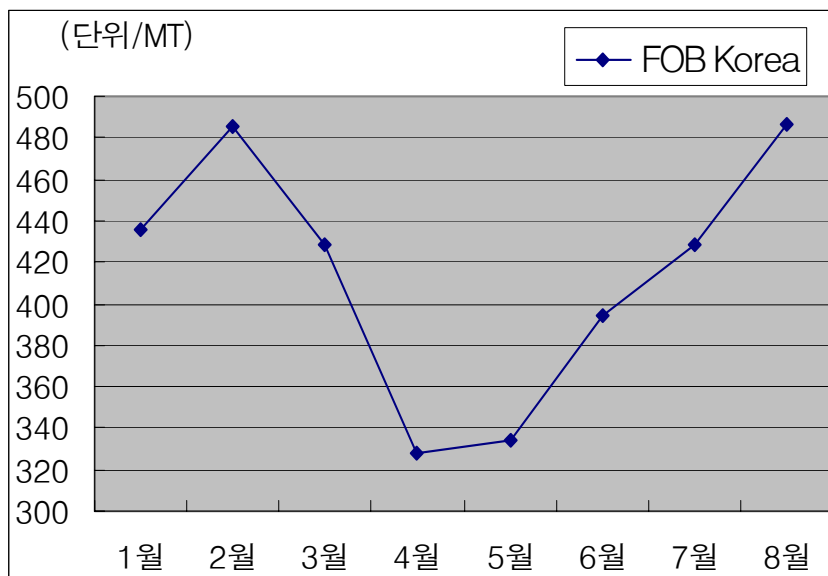
LG-Caltex정유는 Toluene과 Xylene 생산량의 일부가 유통되는 용제시장에서 SK와 함께 70%정도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며 용제시장을 주도해왔다.

LG-Caltex정유는 최근 “앞으로도 P-X공정에 사용되는 Toluene과 함께 용제시장에 필요한 Toluene도 수입해 공급할 것”이라고 밝혀 기존 용제시장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방침을 천명했다.

Toluene은 국내수요가 적어 대부분 수출되고 있으며, 용제시장에는 SK, LG-Caltex정유, 대림코퍼레이션, 인천정유가 공급하고 있다.

국내 용제시장은 공급이 불안정하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어서 시장가격이 적정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oluene 가격추이



Toluene 유통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2003년 국내 Toluene 유통가격은 수출가격보다 kg당 평균 80-100원이 높지만, 최근 SK와 LG-Caltex정유의 과잉경쟁으로 수출가격보다 오히려 낮게 거래되며, 1월 FOB Korea 톤당 456-466달러에 거래될 당시에는 오히려 내수가격이 더 낮은 kg당 440-45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2003년 Toluene은 수출가격보다 국내 내수가격이 2차례 낮게 거래됐는데, Toluene의 국내 유통가격은 8월 kg당 620원, 9월 640원에 거래됐고 현재 국내 거래가격 마진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Toluene과 Xylene은 일부가 용제시장에 유통되는데 용제시장의 중간 핸들링을 담당하는 총판 및 대리점이 총 100군데로 중복대리점 100군데를 합쳐 총 200군데에서 유통하고 있다. <김동민 조사연구원>

<Chemical Journal 2003/09/26>